



## 통상교섭본부장,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와 美 관세 관련 논의

- 상호관세·품목관세 등 일체의 美 관세 면제 중요성 재차 강조
- 이른 시일 내 상호 호혜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의지 재확인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안덕근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하여 6.23(월) 16시(현지시간) 하워드 러트닉(Howard Lutnick)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(Jamieson Greer)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하였다.

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·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,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.

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,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미측에 강조하였다. 또한,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하였다. 동 계기,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하였다.

아울러, 6.24(화)부터 6.26(목)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약에는 「대미 협상 TF」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.

여 본부장은 “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,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” 면서, “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” 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통상정책국<br>미주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안홍상 | (044-203-565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동욱 | (044-203-5658) |